

#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 성격 및 안녕감 관계에 대한 탐색적 접근

이규동\* · 권순재\*\*

## 〈목 차〉

I. 서 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2.1 인터넷 사용과 성격	참고문헌
2.2 자기 개방과 안녕감	<Abstract>
III. 연구방법	

## I. 서 론

2008년 한국인터넷백서에 의하면, 만 6세 이상의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 인구는 3,482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인터넷의 사용 목적(복수 응답)으로는 자료 및 정보 습득이라는 인터넷 초기기부터 중요했던 활용 용도가 87.5%, 여가 활동이 86.1%, 커뮤니케이션 용도가 83.0 %로 상위를 차지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이처럼 인터넷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대 사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인터넷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 활동 참여 저하, 온라인 게임 중독,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예: 구본희, 최무진 2006; Kraut et al., 1998). 물론,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보이며(Kahneman and Tversky, 1979), 부정적인 자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 안정에 기분이 된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정서나 경험 역시 인지 적응과 대인 관계 강화 등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Burns et al., 2008; Fredrickson, 2001; Schmitz et al., 2009). 싸이월드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다양한 웹 커뮤니티들의 활성화는 이미 사람들의 대인 관계의 폭을 인터넷 매체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만(문영주, 이종호, 2007; 유일, 최혁라, 2008; 이문봉, 김은정, 2005; 이웅규, 이승현, 2005; 정영수, 정철호, 2007; 황상

\*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sku00@skku.edu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kwonsj72@gmail.com

민, 김지연, 조희진, 2008), 많은 연구들이 주로 웹사이트의 사용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을 도입하여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과 관련된 성격, 사용자 측면에서 심리적인 효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긍정 심리학이라는 명칭의 연구 분야는 사람들의 행복, 경험, 만족, 강점과 잠재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포함한다(Seligman and Csikszentmihalyi 2000; Sheldon and King, 2001). 학문 영역으로서 긍정 심리학은 아직 많은 진보가 필요하지만, 인류 역사는 해당 분야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뜬 구름 잡는 듯한 말로 들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격언과 담론들의 존재가 이를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관점에서 행복(eudaimonia)은 단순한 즐거움과는 달리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행동이며, 최고의 선 또는 가장 완전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risp, 2000). 이와는 달리 에피쿠로스의 퀘락주의 관점은 마음의 평온(ataraxia)과 즐거움(pleasure)이 행복의 근원이며,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본다(White, 2006). 현대 심리학에서 역시 행복의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지만(Griffin, 2007),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누적된 행복 연구들은 퀘락주의의 관점과 유사하게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정서를 중요시하고 있다(Diener et al., 1999). 여기서 인터넷과 행복과의 관계를 탐색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인터넷은 이미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중요한 사회적 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

도로 탐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에서도 인터넷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michai-Hamburger and Furnham(2007)은 내성적인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개인과 집단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의 사회적 활용에 초점을 두어, i)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웹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 측면에서 차이를 파악하는 것과, ii)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한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이 주관적 행복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인터넷 사용과 성격

사람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구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정보기술 인프라를 사용함에 있어 음란물 유통, 무분별한 공격적 비방, 게임 중독 등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정보의 바다에서 효율적인 정보의 획득과 유통, 의사소통 능력 강화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미디어의 이용과 충족(uses and gratification: Katz et al., 1973)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의사소통 매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관점

에서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이 개인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지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한다.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 또는 사용자 심리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많은 논쟁을 거쳤다. 인터넷의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쓴 Kraut et al. (1998)은 종단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프라인 생활에서의 사회 활동 참여 저하와 외로움(loneliness), 우울함(depression)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이 오프라인 생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점은 Katz et al.(2001) 및 Nie and Erbring(2002)에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Wästlund et al. (2001)은 인터넷 사용과 외로움 또는 우울함 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Wellman et al. (2001)은 사람들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면대면 대화나 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 이후, Kraut et al.(2002)은 Kraut et al.(1998) 연구를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인터넷 사용이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으며, 외향적(extraversion)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성적인(또는 낮은 수준의 외향성) 사람들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과 사용자 개인 차이 변수의 관련성은 인터넷 채팅, 웹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 사회적 의사소통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외향성과 신경증성이라는 성격 차원에 따라 인터넷 사용

용도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Amiel and Sargent, 2004; Hamburger and Ben-Artzi, 2000). Amichai-Hamburger et al.(2002)은 실험을 통해서 내향적(introversion)이고 신경증적(neuroticism)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 채팅에서 보다 자신에 대해 진실 되게 표현하고, 반면에 외향적이고, 신경증적 수준이 낮은 성격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화에서 자신의 진실 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교적 최근 연구인 Guadagno et al.(2008)은 블로그를 하는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new experience)과 신경증성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한 연구 결과는 i) 어떠한 성격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와(예를 들어 외향성 / 신경증성 / 정신병리성의 세 요인 구분, 또는 외향성 / 신경증성 / 개방성 / 호의성 / 성실성의 다섯 요인 구분), ii)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 맥락에서 분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사용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사이트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웹 커뮤니티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접근한다.

## 2.2 자기 개방과 안녕감

전술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관점에서는 행복을 친구들과의 진실한 유대 관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다(Compton, 2005).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 따라, 편의상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녕감과 행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Diener et al., 1999), 주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 Lyubomirsky and Lepper, 1999), 및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Bradburn: 1969) 등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는 자존감, 통제감, 외향적인 성격, 낙관성,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성 등이 있다(Compton, 2005). 그 중에서도 외향적인 성격을 비롯한 개인차 변수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Emmons, 1985). 물론 개인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Lykken and Tellegen 1996), 행복 수준을 쉽게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다(Weiss et al., 2008). 또한,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쉽게 적응하므로(Brickman and Campbell, 1971), 삶의 만족이나 행복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은 증진될 수 있으며(Diener et al., 2006; Lyubomirsky et al., 2005), 이런 행복 개입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증진, 사회적 비교를 피하는 습관,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인 사고, 강점 활용하기 등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Fordyce, 1977, 1983; Lyubomirsky, 2007; Seligman et al., 2005). Mitchell et al.(2009)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험 참가자들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강점을 오프라인 생활에서 강화하도록 하는 개입 훈련(Seligman et al., 2005)을 수행했다. 즉, 인터넷 인프라가 일반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행복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응용 서비스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자기 개방의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공통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커뮤니티와는 다르게, 개인적 유대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스스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매체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유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Baker and Moore, 2008; Ellison et al., 2007, Stefanone and Jang 2007). 또한, Ko and Kuo(2009)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자기 개방은 개인적 인맥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확보된 사회적 자산은 주관적인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을 제시했다. 그 동안의 인터넷을 통한 자기 개방과 안녕감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i) 행복의 주요 예측 요인인 개인 성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ii) 자기 개방 자체가 사용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효과, 즉 행복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글쓰기를 통한 자기개방이 의학적 관점에서 치유의 효과를 보인다(예:

Pennebaker, 1997).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 내용이 부정적이건(Esterling et al., 1999), 긍정적이건(Gable et al., 2004) 간에 사람들의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 개방의 양과 주관적인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 III. 연구 방법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과 성격 및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했다. 설문지는 현재 자신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웹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각 웹사이트에서 자기 개방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와, 주관적 행복, 성격 측정 항목 및 인구통계 항목을 측정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었다. 측정에 사용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사용자가 2009년 1월 기준 2,334만 명으로(SK 커뮤니케이션즈, 2009)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한정하였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주관적 행복은 Lyubomirsky and Lepper(1999)가 제시한 4개 문항의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 수가 적으면서도, 사회적 비교라는 행복의 주요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 Schwartz et al. 2002) 적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나는 자신이 대체로 <1: 매우 행복하지 않은 사람 - 7: 매우 행복한 사람> 이라고 생각 한다’, ‘대부분의 내 나이 또래와 비교할 때 나

는 자신이 <1: 덜 행복하다 - 7: 더 행복하다> 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행복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생을 즐기며 모든 것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상기 진술은 당신을 묘사하는 데 어느 정도나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1: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 7: 매우 크게 해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기 진술은 당신을 묘사하는 데 어느 정도나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세요(1: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 7: 매우 크게 해당한다, 역채점)’으로 구성하였다. 자기 개방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Archer, 1980). 이런 개념을 잘 반영하는 척도로 본 연구는 Gibbs et al. (2006)에서 사용한 항목을 각각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의 자기 개방 3 문항과 웹 커뮤니티 맵락에서의 자기 개방 3 문항으로 적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원전 출처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즉, ‘나는 <내 미니홈피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나 자신의 느낌을 자주 표현한다’, ‘나는 <내 미니홈피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주 표현한다’, ‘나는 <내 미니홈피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표현한다’로 구성하였다. 성격 차원 측정을 위해서는 단축형 국제 성격 설문 풀(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을 사용하였다(Buchanan et al., 2005). 해당 성격 설문지는 성격 5대 요인인 외향성 9 문항(예: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신경증성 8 문항(예: 나는 가끔씩 우울하다), 경험 개방성 7 문항(예: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듣기를 즐긴다), 성실성 10 문항(예: 나는 사소한 일은 바로 처리한다), 친화성 7 문항(예: 나는 사람들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대한다)을 반영하고 있다(1: 전혀 적합하지 않다 - 5: 매우 적합하다). 이 설문 척도 역시 비교적 짧은 성격 측정 도구로 최근에 개발되었으면서도, 많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Goldberg et al., 2006) 본 설문에 적용하였다. 설문은 서울 소재 S 대학의 학생들 380명에게 배포되었다. 이 중 불완전 응답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37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은 남학생 183명(49.2%), 여학생 18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세(SD: 3.1), 주당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11.8 시간(SD=10.2)이었다.

#### IV. 연구 결과

측정 문항 중 주관적 행복, 소셜 네트워크 사

이트에서의 자기개방, 웹 커뮤니티에서의 자기개방은 각기 측정 항목들의 평균, 성격 5대 요인은 선행 연구들의 전통에 따라 측정 항목들의 합으로 계산되었다. 모든 구성 개념들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0.7을 넘는 수준이어서 분석에 적합한 신뢰성을 보였다(Nunnally, 1978). 구성 개념들의 기초 통계량과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전체 372명 중,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웹 커뮤니티 활동을 모두 하고 있는 학생은 136명 (36.5 %), 싸이월드 미니홈피만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49명(40.0 %), 웹 커뮤니티 활동만 하고 있는 학생은 25 명(6.7 %)이었으며, 두 서비스 모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62명 (16.8%)이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자(285 명)와 비사용자(87명)는 주관적 행복( $t = 0.153$ ), 신경증성( $t = 0.924$ ), 개방성( $t = 0.153$ ), 호의성 ( $t = 0.939$ ), 성실성( $t = -0.783$ )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외향성 측면에서는 유

<표 1> 기초 통계량과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SD)	1	2	3	4	5	6	7	8
1.주관적행복	5.012 (0.842)	<b>0.724<sup>a</sup></b>							
2.소셜네트워크 자기개방	3.444 (1.021)	0.204*	<b>0.907</b>						
3.웹커뮤니티 자기개방	2.590 (1.120)	0.215*	0.222*	<b>0.925</b>					
4.외향성	31.18 (5.483)	0.313*	0.193*	0.379*	<b>0.816</b>				
5.신경증성	22.73 (4.884)	-0.450*	-0.030	-0.213*	-0.256*	<b>0.756</b>			
6.개방성	23.87 (4.407)	0.180*	0.096	0.195	0.208*	-0.025	<b>0.708</b>		
7.호의성	25.15 (3.603)	0.195*	0.052	0.151	0.121	-0.350*	0.059	<b>0.714</b>	
8.성실성	32.50 (4.808)	0.183*	0.100	0.136	0.193*	-0.364*	0.113	0.224*	<b>0.723</b>

\*  $p < 0.01$ , 양측 검정, <sup>a</sup> 대각영역: 크론바하 알파

&lt;표 2&gt;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비사용자 및 웹 커뮤니티 사용/비사용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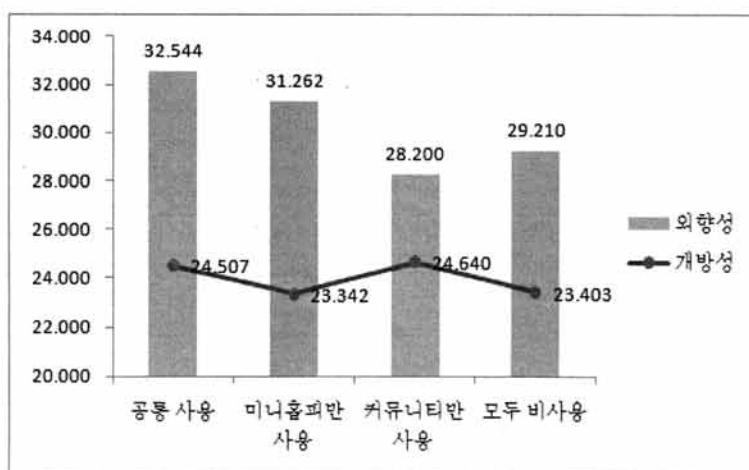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자	싸이월드 비사용자	평균차이 t-값	웹 커뮤니티 사용자	웹 커뮤니티 비사용자	평균차이 t-값
주관적행복	5.016	5.000	0.153	5.008	5.015	-0.087
외향성	31.874	28.920	4.512**	31.870	30.659	2.120*
신경증성	22.863	22.310	0.924	22.671	22.782	-0.217
개방성	23.898	23.759	0.258	24.528	23.360	2.551*
호의성	25.242	24.828	0.939	25.043	25.223	-0.475
성실성	32.389	32.851	-0.783	32.925	32.171	1.503

\*  $p < 0.05$ , \*\*  $p < 0.01$ , 양측 검정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4.512$ ,  $p < 0.001$ ). 웹 커뮤니티 활동자(161명)와 비활동자(211명)의 비교에서는 주관적 행복( $t = -0.087$ ), 신경증성( $t = -0.217$ ), 호의성( $t = -0.475$ ), 성실성( $t = 1.503$ )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외향성( $t = 2.120$ ,  $p < 0.04$ )과 개방성( $t = 2.551$ ,  $p < 0.02$ )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참조).

다음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 웹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 여부와 외향성 / 개방성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외향성의 경우 싸이월드 미니홈

피와 웹 커뮤니티 공통 사용 집단(평균 = 32.54), 싸이월드 미니홈피만 사용하는 집단(평균 = 31.26), 커뮤니티만 사용하는 집단(평균 = 28.20), 두 서비스 모두 사용하지 않는 집단(평균 = 29.21) 간의 차이는 유의했다( $F(3, 368) = 8.424$ ,  $p < 0.01$ ). 분산분석의 사후 분석 결과, 웹 커뮤니티만 사용하는 집단과 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차이를 제외한 다른 집단 간 차이는  $p$  값 0.05 수준에서 유의했다. 개방성 측면에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웹 커뮤니티 공통 사용 집단(평균 = 24.51),



&lt;그림 1&gt; 사회적 사용 유형별 외향성과 개방성 비교

싸이월드 미니홈피만 사용하는 집단(평균 = 23.34), 커뮤니티만 사용하는 집단(평균 = 24.64), 두 서비스 모두 사용하지 않는 집단(평균 = 23.40) 간의 차이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했다( $F(3, 368) = 2.167, p < 0.1$ ). 사후 분석 결과, 개방성에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웹 커뮤니티를 모두 사용하는 집단과 싸이월드 미니홈피만 사용하는 집단 간의 차이만  $p$  값 0.05 수준에서 유의했다. 사회적 사용 유형별 외향성과 개방성의 차이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다음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자(285명) 그룹에서의 미니홈피를 통한 자기 개방의 양과 주관적 행복 간의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격 다섯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176( $p = 0.003$ , 양측 검정)으로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같은 방식으로 웹 커뮤니티 사용자(161명)를 대상으로 수행한 편상관분석 결과, 웹 커뮤니티를 통

한 자기 개방의 양과 주관적 행복 간의 상관계수는 0.008( $p = 0.926$ , 양측 검정)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자 그룹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자기 개방의 양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변수들을 표준화시킨 후에,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로 성격 5 요인을 투입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 싸이월드에서의 자기 개방의 양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간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301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다(Hair et al., 1998). 첫 단계 모형에서는 외향성( $t = 2.642, p < 0.01$ ), 신경증성( $t = -6.838, p < 0.01$ ), 개방성( $t = 2.679, p < 0.01$ )이 주관적 행복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0.273이었다. 자기 개방의 양이 투입된 다음 모형의 설명력은 0.295로 증가분( $\Delta R^2 = 0.023, \Delta F = 8.904, p < 0.01$ )이 유의

<표 3>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자 그룹의 주관적 행복 예측 회귀분석 결과

단계		표준화 회귀계수	t-값	분산팽창지수
1	외향성	0.144	2.642*	1.138
	신경증성	-0.398	-6.838*	1.299
	개방성	0.141	2.679*	1.059
	호의성	0.063	1.137	1.186
	성실성	0.009	0.156	1.208
	$R^2 = 0.273$			
2	외향성	0.116	2.138*	1.171
	신경증성	-0.406	-7.065*	1.301
	개방성	0.133	2.563*	1.062
	호의성	0.059	1.081	1.187
	성실성	-0.001	-0.026	1.212
	자기 개방의 양	0.154	2.984*	1.048
	$R^2 = 0.295$			
	$\Delta F = 8.904^*, \Delta R^2 = 0.023^*$			

\*  $p < 0.01$ , 양측 검정

하였다. 이 모형에서 자기 개방의 양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t = 2.984, p < 0.01$ ) 유의하였다(<표 3> 참조).

## V. 논의 및 결론

행복 추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적인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이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나 실증 연구가 축적된 것은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더구나, 행복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은 일상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친목 도모나 레저 활동들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지 못하다고 제시한다(Csikszentmihalyi and Hunter, 2003; Kahneman et al., 2004). 그러나, 인터넷이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과 긍정 심리학 관점을 연결시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며,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회적 의사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성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런 사회적 사용 맥락에서 자기 개방이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했다.

연구 결과 사용자 성격에 따라 인터넷을 사회적 용도로 사용하는 패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또는 내성적인 사람)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개인 차원의 유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과 외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웹

커뮤니티라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웹 커뮤니티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외향성이 낮은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적 의사소통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성격의 웹 커뮤니티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방성이 높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성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은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높은 편이다(Carver and Scheier, 2007). 따라서 이들은 인터넷 역시 사회적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표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서비스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웹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통해 내성적인 사람들보다 대인 관계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누린다는 Kraut et al. (2002)의 인터넷의 사회적 효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에 대한 외향성과 개방성의 역할을 제시한 Ross et al.(2009)의 보고 역시 본 연구 결과에서 개방성과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용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영역에서 성격 차원은 전통적으로 외향성과 신경증성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는 우선 그 두 가지 성격 차원(personality dimension)이 오랜 기간 검증되었고, 성격 차원이 세부 성격 기질(personality trait)들의 상위 요인인 2차 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차원들 간의 상호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측정과 활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결과는 인터넷이 다양한 사회적 활용 서

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개방성을 비롯한 다른 세부적인 개인 차이까지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성격에 따른 인터넷의 사회적인 활용 측면에 대해서, 본 연구는 자기 개방과 행복과의 관계를 탐색했다. 인터넷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비대면 접촉, 의사소통의 시간적 고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표현이 외부 상황적 요인의 제약을 벗어나서 쉽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Milgram의 실험에서, 피의자를 취조해야 하는 입장은 담당한 일반인 실험 참가자들은 피의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전기 자극을 주어 피의자를 괴롭히는 패턴을 보였다(Milgram, 1963). 사람들이 강한 상황 조건에서 개인의 성격보다는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교도소 맥락에서 일반인 교도관과 죄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 실험(Henry et al., 1973) 등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Milgram의 실험에서 일반인들이 자신이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권위를 취조 상황에서 남용한 경우라면,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종교 단체나 알콜 중독 치료 같은 시설에서의 고백 산업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개입된

상황에서도 자기 개방이 심리적으로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인터넷을 통한 자기 개방, 특히 개인의 유대 관계 사이에서의 자기 개방은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개인의 행복감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물론, 자기 개방은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서도 가능하다(Rubin, 1975). 열차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비판이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약한 상황적 특성이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사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표현의 욕구(Goffman, 1958)를 쉽게 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다. 연구 결과, 이런 자기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이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집단의 규범이나 영향이 중요할 수 있는 웹 커뮤니티에서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탐색적인 연구는 인터넷의 사회적 사용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사용 목적, 개별 웹사이트의 특성,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나 관여도와 같은 다양한 개인 차이 변수 등이 고려되어 성격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 커뮤니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의료 치료 목적의 웹 커뮤니티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결성된 공동체에서의 자기 개방은 긍정적 보답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ak and Gluck-Ofri, 2007).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통계 집단을 토대로 본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자기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특히 사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이 일촌 관리를 통한 개인 유대 관계에서는 보다 쉽게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난이나 책임, 악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통로를 제공한다. 물론,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실제 생활을 통해서도 다양하다.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독특한 특성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정보 시스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셜 네트워크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아바타, 음악, 홈페이지 스킨 등 많은 기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사용자들의 자기 표현의 욕구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구본희, 최무진,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특성 및 인터넷 인지특성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13권, 제3호, 2006, pp. 233-252.

문영주, 이종호, "온라인 커뮤니티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만족과 커뮤니티 신뢰를 매개로",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1호, 2007, pp. 23-45.

유일, 최혁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영향이 플로우, 지각된 유용성,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싸이월드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17권, 제2호, 2008, pp. 113-135.

이문봉, 김은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참여 동기와 사회적 영향 요인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제14권, 제2호, 2005, pp. 191-214.

이용규, 이승현, "정보기술 사용에서의 놀이성, 유용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미니홈피 사용을 중심으로", 경영정보학연구, 제15권, 제3호, 2005, pp. 91-109.

정영수, 정철호, "개인 커뮤니티의 지각된 특성이 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3호, 2007, pp. 133-159.

황상민, 김지연, 조희진, "사이버공간 속의 관계 맷기: 싸이월드 이용행동에 나타난 소셜 네트워크 활동 양상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제9권, 제2호, 2008, pp. 285-303.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SK 커뮤니케이션즈, 2008 경영보고서, SK 커뮤니케이션즈, 2009.

Amichai-Hamburger, Y. and Furnham, A., "The Positive 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3, No. 2, 2007, pp. 1033-1045.

-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and Fox, S.,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5,  
No. 2, 2002, pp. 125.
- Amiel, T. and Sargent, S.L.,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net Usage Motiv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0,  
No. 6, 2004, pp. 711-726.
- Archer, J.L. Self-disclosure. in Wegner, D. and  
Vallacher, R. eds.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80, 183-204.
- Baker, J.R. and Moore, S.M., “Blogging as a Social  
Tool: A Psychosoci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Blogg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1, No. 6, 2008, pp.  
747-749.
- Barak, A. and Gluck-Ofri, O., “Degree and  
Reciprocity of Self-Disclosure in Online  
Forums”,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0, No. 3, 2007, pp. 407-417.
- Bradburn, N.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ldine Publishing, Chicago,  
1969.
- Brickman, P. and Campbell, D.T.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Appley, M.H. ed. *Adaptation  
Level Theory: A Symposium*, Academic  
Press, New York, 1971, 287-302.
- Buchanan, T., Johnson, J.A. and Goldberg, L.R.,  
“Implementing a Five-Factor Personality  
Inventory for Use on the Interne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21, No. 2, 2005, pp.  
115-127.
- Burns, A.B., Brown, J.S., Sachs-Ericsson, N.,  
Plant, E.A., Curtis, J.T., Fredrickson, B.L.  
and Joiner, T.E.,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 and Coping:  
Replication, Extension, and Initial  
Exploration of Neurochemical  
Subst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4, No. 2, 2008, pp.  
360-370.
- Carver, C.S. and Scheier, M.F., *Perspectives on  
Personality(6th ed)*, Allyn & Bacon,  
Boston, 2007.
- Compton, W.C.,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Wadsworth Publishing,  
California, 2005.
- Crisp, R.(translator),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0.
- Csikszentmihalyi, M. and Hunter, J.,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4, No. 2, 2003, pp. 185-199.
- Diener, E., Lucas, R.E. and Scollon, C.N., “Beyond  
the Hedonic Treadmill: Revising the  
Adaptation Theory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61, No. 4,  
2006, pp. 305.
- Diener, E., Suh, E.M., Lucas, R.E. and Smith, H.L.,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No. 24, 1999, pp. 276-302.
- Ellison, N.B., Steinfield, C. and Lampe, C.,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2, No. 4, 2007, pp. 1143.
- Emmons, R.A.,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1, No. 1, 1985, pp. 89-97.
- Esterling, B.A., LL., Murray, E.J. and Pennebaker, J.W., "Empirical Foundations for Writing in Prevention and Psychotherapy: Ment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Vol. 19, No. 1, 1999, pp. 79-96.
- Fordyce, M.W., "Development of a Program to Increase Personal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4, No. 6, 1977, pp. 511-520.
- Fordyce, M.W., "A Program to Increase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0, No. 4, 1983, pp. 483-498.
- Fredrickson, B.L.,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2001, pp. 218-226.
- Gable, S.L., Reis, H.T., Impett, E.A. and Asher, E.R.,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87, No. 2, 2004, pp. 228-245.
- Gibbs, J.L., Ellison, N.B. and Heino, R.D., "Self-Presentation in Online Personals: The Role of Anticipated Future Interaction, Self-Disclosure, and Perceived Success in Internet Dat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 33, No. 2, 2006, pp. 152-177.
- Goffman, E.,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1958.
- Goldberg, L.R., Johnson, J.A., Eber, H.W., Hogan, R., Ashton, M.C., Cloninger, C.R. and Gough, H.G.,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and The Future of Public-domain Personality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0, No. 2, 2006, pp. 84.
- Griffin, J., "What Do Happiness Studies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8, No. 1, 2007, pp. 139-148.
- Guadagno, R.E., Okdie, B.M. and Eno, C.A., "Who blogs? Personality Predictors of Blogg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4, No. 5, 2008, pp. 1993-2004.
- Hair, J.F., Anderson, R.E., Tatham, R.L. and Black, W.C.,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 Hall (5th ed), New Jersey, 1998.
- Hamburger, Y.A. and Ben-Artzi, E., "The

- Relationship between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nd the Different Uses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6, No. 4, 2000, pp. 441-449.
- Hency, C., Banks, W. and Zimbardo, P.Z., "Interpersonal Dynamics in Simulated P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 Penology*, Vol. 1, No. 1, 1973, pp. 69-97.
- Kahneman, D., Krueger, A.B., Schkade, D.A., Schwarz, N. and Stone, A.A.,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 *Science*, Vol. 306, No. 5702, 2004, pp. 1776-1780.
- Kahneman, D. and Tversky,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pp. 263-292.
- Katz, J.E., Rice, R.E. and Aspden, P., "The Internet, 1995-2000: Access, Civic Involvement, and Social Interac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5, No. 3, 2001, pp. 405-419.
- Katz, E., Gurevitch, M., and Haas, H., "On The Use of Mass Media for Important Th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8, No. 2, 1973, pp. 164-181.
- Ko, H.-C. and Kuo, F.-Y., "Can Blogging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Disclosure?"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2, No. 1, 2009, pp. 75-79.
-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and Crawford, A.,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8, No. 1, 2002, pp. 49-74.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and Scherlis, W.,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9, 1998, pp. 1017-1031.
- Lykken, D. and Tellegen, A., "Happiness is a Stochastic Phenomenon", *Psychological Science*, Vol. 7, No. 3, 1996, pp. 186-189.
- Lyubomirsky, S.,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The Penguin Press, New York, 2007.
- Lyubomirsky, S. and Lepper, H.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6, No. 2, 1999, pp. 137-155.
- Lyubomirsky, S., Sheldon, K.M. and Schkade, D.,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9, No. 2, 2005, pp. 111-131.
- Milgram, S.,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63, pp. 371-378.
- Mitchell, J., Stanimirovic, R., Klein, B. and Vella-Brodrick, D., "A Randomised

- Controlled Trial of A Self-guided Internet Intervention Promoting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5, No. 3, 2009, pp. 749-760.
- Nie, N.H. and Erbring, L.,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IT & Society*, Vol. 1, No. 1, 2002, pp. 275-283.
- Nunnally, J.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New York, 1978.
- Pennebaker, J.W., *Opening up: The Healing Power of Expressing Emotions*, The Guilford Publication, New York, 1997.
- Ross, C., Orr, E.S., Sisic, M., Arseneault, J.M., Simmering, M.G. and Orr, R.R.,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5, No. 2, 2009, pp. 578-586.
- Rubin, Z., "Disclosing Oneself to a Stranger: Reciprocity and Its Limi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No. 3, 1975, pp. 233-260.
- Schmitz, T.W., De Rosa, E., and Anderson, A.K., "Opposing Influences of Affective State Valence on Visual Cortical Encoding", *Journal of Neuroscience*, Vol. 29, No. 22, 2009, pp. 7199-7207.
- Schwartz, B., Ward, A., Monterosso, J., Lyubomirsky, S., White, K. and Lehman, D.R., "Maximizing Versus Satisficing: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No. 5, 2002, pp. 1178-1197.
- Seligman, M.E.P. and Csikszentmihalyi, M.,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 5-14.
- Seligman, M.E.P., Steen, T., Park, N. and Peterson, C.,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0, No. 5, 2005, pp. 410-421.
- Sheldon, K.M. and King, L.,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2001, pp. 216-217.
- Stefanone, M.A. and Jang, C.-Y., "Writing for Friends and Family: The Interpersonal Nature of Blogs ",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 1, 2007, pp. 123.
- Wästlund, E., Norlander, T. and Archer, T., "Internet Blues Revisited: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n Internet Paradox Study",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4, No. 3, 2001, pp. 385-391.
- Weiss, A., Bates, T.C. and Luciano, M., "Happiness Is a Personal(ity) Thing: The Genetic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Psychological Science*, Vol. 19, No. 3, 2008, pp. 205-210.
- Wellman, B., Haase, A.B., Witte, J., Hampton, K.,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5, No. 3, 2004, pp. 436-455.

White, N.P., *A Brief History of Happiness*, Blackwell Publishing, Oxford, 2006.

### 권순재(Soonjae Kwon)

현재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Journal of MIS, Information and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개제할 예정이며, 국내에도 20 여편의 연구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사결정기법,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소비자행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창의성 등이다.

### 이규동(Lee, Gyudong)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삼성전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및 고객관계 관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Information and Management, 경영정보학연구*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기술 사용자 심리, 정보 기술의 사회적 영향, 개인화, 정보 제공 분야 등이다.

<Abstract>

##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Use of the Internet, Personality, and Well-Being

Lee, Gyudong · Soonjae Kwon

Although the Internet has been a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modern societies, researchers did not pay attention to its' positive impacts on individual's psychological process. The Internet provides users with a unique environment such as visual isolation, non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easiness to escape from social influences. This environment enables people to take free action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and disclose themselves. From the uses and gratification perspective, the current research reveals that individuals with high extraversion are inclined to maintai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those with high openness participate in web commun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social use of the Internet may reflect their personality.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controlling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the amount of self-disclosure through ones' social networking si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This finding suggests that like confession behaviors in religious or curing facilities, people can use the Internet as a therapeutic or a preventative method for promoting their well-being.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Personality, Social Impact of the Internet, Happiness, Social Network Sites, Web Community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23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9년 12월 14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